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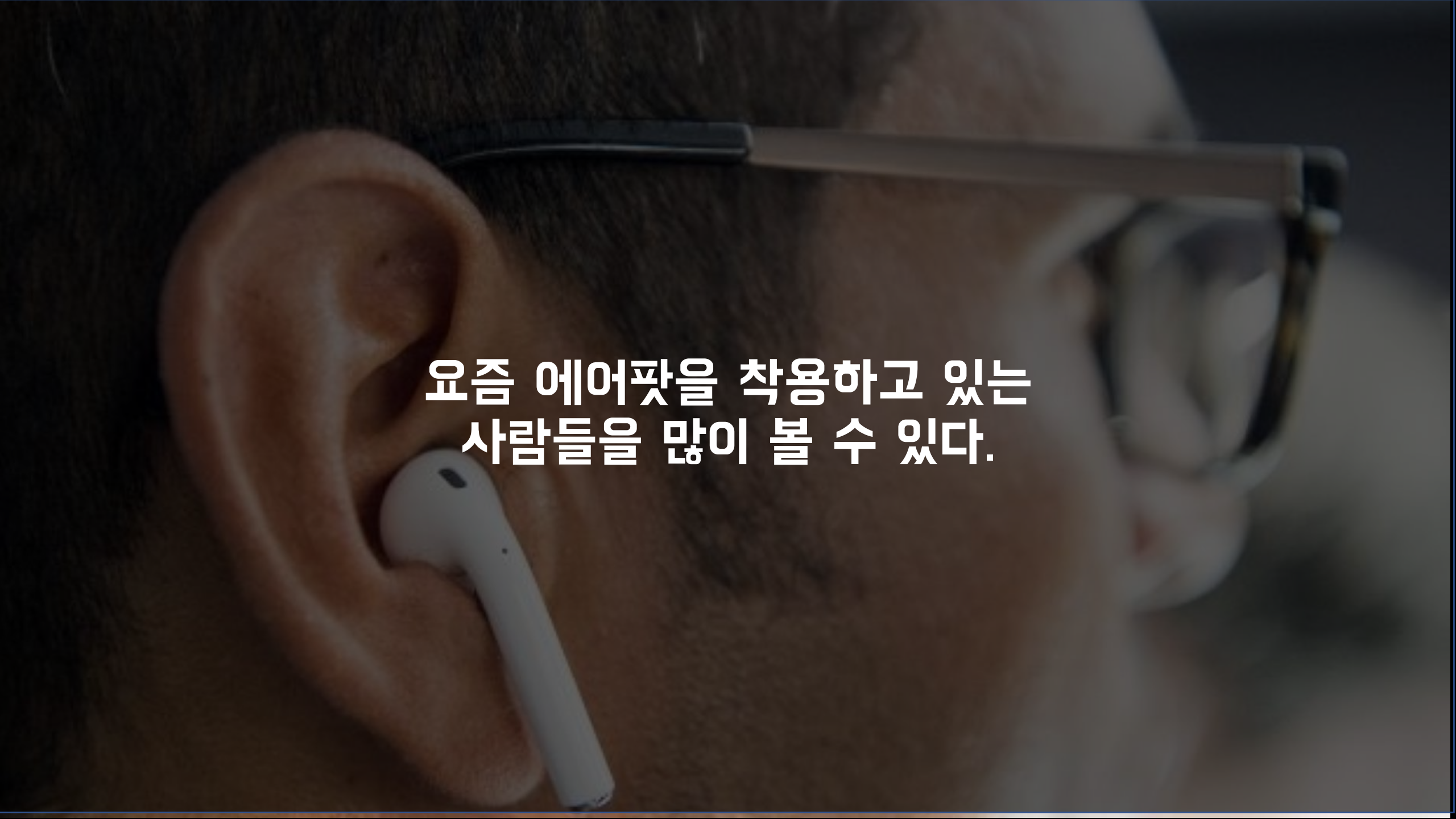


어떤 이어폰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2020 - M1

목차

- 들어가며: 상황 설명
- 웨어러블 음향기기의 분류
 - 에어팟 출시
 - 이어폰 추천
 - QCY 시리즈
 - AKG N400
 - 파워비츠 프로 시리즈
 - 라이퍼텍 테비
 - 결론
- 다음 모듈과의 연장선 첫 개인주제가 아쉬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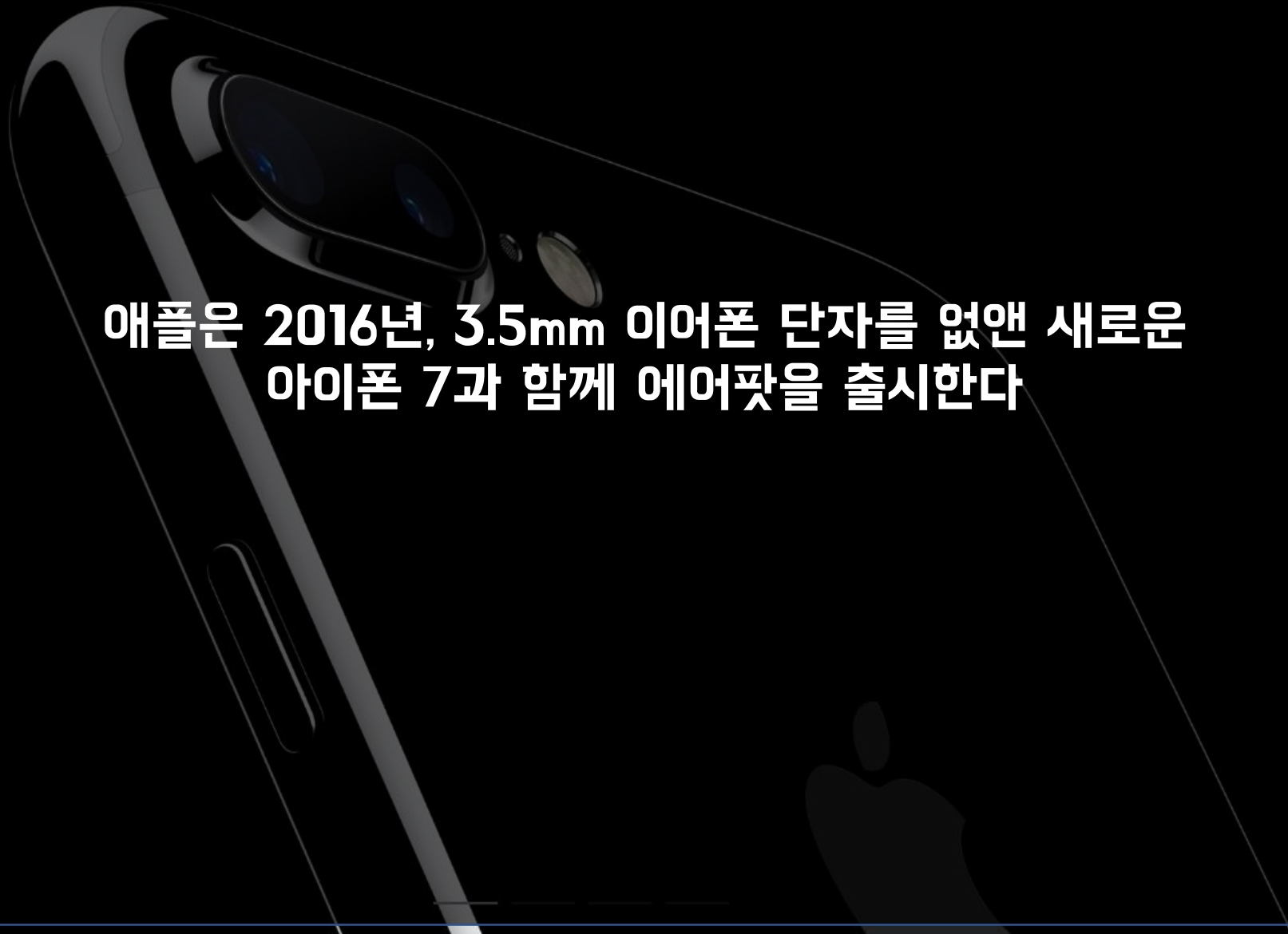
**요즘 에어팟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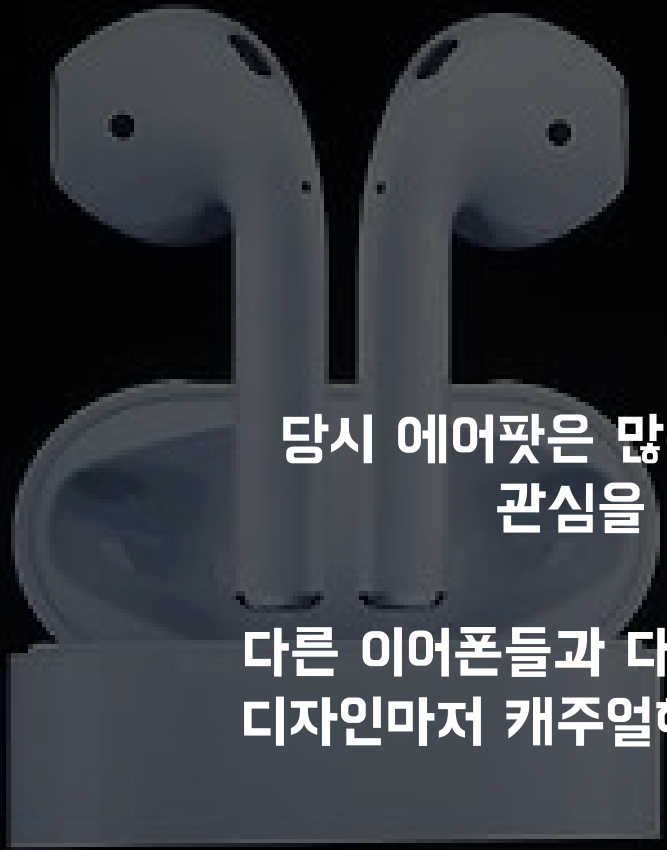
**하지만 에어팟은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다양한 무선 이어폰들이 출시되고 있는 시대, 어떤
이어폰을 사야 잘 샀다고 할 수 있을까?

iPhone
이것이 바로 7.

**애플은 2016년, 3.5mm 이어폰 단자를 없앤 새로운
아이폰 7과 함께 에어팟을 출시한다**





당시 에어팟은 많은 혹평을 받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관심을 받으며 많이 팔리게 되었다.

다른 이어폰들과 다르게 전문가용이 아니지만 좋은 음질에
디자인마저 캐주얼하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듯 하다

**하지만 에어팟은 비싸다는 것, 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

이어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주목하길 바란다!

소비 계획에 대하여

캐주얼한 것이 좋다면 에어팟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음질의 음악 감상을 원한다면 헤드폰, 또는 40, 50만원대 이상의 고가의 이어폰을 찾는 것이 맞다



B&O E8 3.0
450,000



Bose Qc35
499,000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이어폰 구매 팁!

(대부분 10만원대 이상 제품으로 추천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유명한 버즈나 에어팟을 제외하고 추천할 것)

왜냐하면, 10만원대 이하의 제품에서 좋은 음질이나 내구성, 배터리 지속시간 등을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2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 이어폰을 하나 추천하자면
QCY시리즈 이다. 필자의 첫 블루투스 이어폰이기도 한데,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 가격이다.
2만원이라는 가격에 이 정도의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가격대비 성능
2만원대 가격치고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준다. 13만원대의 갤럭시 버즈와 비교를 해보자면 음질이 버즈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비등비등하다(**하지만 통화품질이 조금 떨어진다**)



AKG N400

출시한 지 1달이 거의 되어가는 파끈파끈한 신제품이다.

음질: AKG 특유의 고음 강조(저음이 풍부한 편은 아님)

휴대성 : 케이스가 큰 편은 아니나 두께가 조금 있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격: 20만 9000원
(하지만 인터넷 쇼핑으로 15만원 정도로까지 구매할 수 있음)

배터리 사용시간:
이어폰 단독: 6시간
+케이스: 12시간

기타:
노이즈캔슬링 지원(너무 기대할 정도는 아님)



PowerBeats Pro

먼저 이 제품은 닥터 드레가 설립한 음향기기 회사 Beats의 제품인데, 몇 년 전 애플이 Beats를 인수하였다.

그래서 이 제품 또한 에어팟 2와 같은 H1칩셋을 사용하여 연결성, 기능은 에어팟과 완전히 같다.

그러나 Beats는 힙합 등의 장르와 어울리는 음질의 이어폰을 제작하기 때문에 미국의 BOSE사와 함께 베이스가 강한 음향기기를 만든다는 평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

그러므로 에어팟보다 베이스가 풍부하여 공간감 등이 더 좋다.

하지만 그에 따른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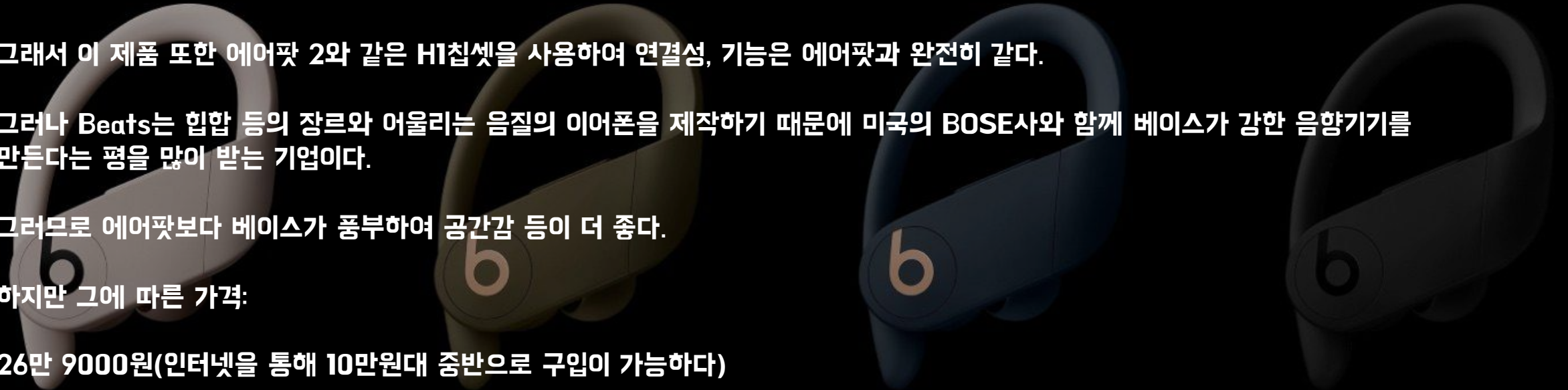
26만 9000원(인터넷을 통해 10만원대 중반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필자가 쓰고있는 입장으로 말하자면 케이스가 매우 큰 편이라 휴대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다

배터리: 이어폰 단독 사용시간: 9시간(긴 편이다)

+케이스: 24시간

5분 충전시 1시간 반 사용가능(Fast Fuel탑재)



Powerbeats

방금 추천한 파워비츠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한다.

파워비츠 라인업 중에서 보급형으로 나온 제품이기도 한데, 사진을 보면 양쪽 이어폰이 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 또한 운동용 이어폰이다.

15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보유하고 있고, 5분 충전시 1시간 사용이 가능한 Fast Fuel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가격은 16만 9000원이다

색상은 레드, 화이트, 블랙으로 나뉘어진다.



라이퍼텍 테비

라이퍼텍이라는 음향기기 회사에서 만든 10만원대 이어폰이다.

현재 가격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딱 중간의 가격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패브릭 케이스

이어폰, 케이스 포함 무려 70시간이라는 엄청난 사용시간을 자랑한다.

10만원대 이어폰치고 음질이 정말 좋음(버즈와 비슷한 정도)

음이 뽕 뚫린 느낌이지만 20만원 이상의 제품만큼의 음질을 기대하기엔 무리

하지만 아이폰과 연결시에 조금 싱크(보이는 것과 소리가 맞는 것)가 맞지 않는다

IP67급의 방수



결론

사실 정말 선택지가 다양한 이어폰 분야에서는 유명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귀에 잘 맞는지, 내 입맛에 맞는 음질인지, 자신의 사용 용도는 어떠한지를 참고하여 청음샵에서 직접 여러 제품을 들어보면서 구입하는 것이 후회가 가장 적을 것이다. 하지만 리스크가 조금 존재하고, AS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어팟이나 버즈를 선택하는 것 같다.

나는 이 개인주제를 통해서 이어폰에 대한 새로운 정보, 소비자들의 심리 등을 알게 되었는데,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음향기기 분야에서는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많이 팔리는 제품은 그만큼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그 제품은 믿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공신력이 있다는 말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 일수도 있지만 나는 사람들이 남이 사면 다 좋은 것이라는 집단심리 같은 것에서 벗어나 남들과 다른 선택지를 시도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음 모듈과의 연장선

냉정하게 보자면 이번 개인주제는 거의 실패라고 보아도 무방함

초반에 주제의 방향을 많이 틀면서 깊이 있는 조사를 하지 못했음

이번 모듈의 개인주제는 아쉽게 마무리될 것 같다

하지만 다음 모듈로 연장 또한 가능하다!

다음 모듈에 이 개인주제를 진행하게 된다면 개인의 용도, 취향별로 이어폰 뿐만이 아닌 여러 음향기기를 추천해주는 어플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연장해볼 생각이다.

개인주제의 뒷이야기...왜 실패했나?

원래 개인주제를 3d프린터와 관련된 것으로 하려고 했다

평소에 3d프린터로 집을 만들고, 인공 장기 등을 제작한다는 말을 들어서 3d프린터와 미래 산업의 관련성 등의 개인주제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외출이 조금 어려워진 상태고, 원래 거캠에 비치된 3d프린터를 자주 이용하여 개인주제를 이어나갈 생각이었으나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주제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주제의 방향을 확실히 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결국 개인주제가 부실해지게 되었다.

**다음 모듈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물과
함께 성취감 또한 느끼고 싶다.**